

## 선진화를 위한 기생충의 몫



이 순 형

기생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한때 기생을 부리던 기생충감염의 고삐가 잡히자, 주위사람들이 기생충학자들의 장래를 걱정해 준다. 「기생충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것이나?」고.

오늘날 같이 기생충감염율을 줄이게 된 데에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추적 역할은 역시 기생충학자들이 한 셈인데, 그러고 보니 우리 기생충학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러나 정녕 우리나라에서 기생충이 다 없어졌다면 얼마나 좋으랴.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기생충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 줄어든 기생충이란 것은 회충, 편충, 구충(십이장충)같이 옛날부터 우리 겨레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것들로서 이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니 모든 기생충이 다 없어진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충이나 간흡충같은 기생충은 아직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회충, 구충같은 주요 기생충의 위세에 눌러 인식조차 하지 않았던 각종 장흡충류가 속속 발견되고 있고 덩달아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신종 기생충이 밝혀지기도 한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도 그 기호가 초식에서 육식으로 바뀐에 따라 고기나 생선을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과 동물의 기생충이 사람에게 옮겨오는 이른바 인수공통감염 기생충이 늘어나고 있다.

못살던 시절에는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곤 기생충 밖에 없어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인이나 유엔군장병에게 기생충을 선사했었는데

기생충의 생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물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생충의 생태와 사람과의 연관을 끊는 예방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생충예방에 더욱 노력하여 지금보다도 더 낮은 기생충감염율을 유지하도록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만방을 휘젓고 돌아오는 길에 기생충을 수입해 오는 일이 많아졌다.

기회감염이라 하여 면역억제약을 많이 쓴 사람, 암치료약이나 방사선 치료로 면역기능이 약화된 사람,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기생충도 전보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구충제만 주면 기생충이 평평 쏟아져나와 명의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위와 같은 기생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한마디로 기생충문제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 나라에서 기생충을 깡그리 없앤다는 것은 환상이고 불가능한 일이며, 기생충없는 고장이란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기생충은 사람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환경이란 모든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극의 빙산 꼭대기나 사하라의 열사, 그리고 중금속이나 농약으로 범벅이 된 땅에서는 기생충이 살아 남을 수 없는데 이런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생충의 생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물이 살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생충의 생태와 사람과의 연관을 끊는 예방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생충예방에 더욱 노력하여 지금보다도 더 낮은 기생충감염율을 유지하도록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옛날의 우리 처지와 같이 기생충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라가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말라리아(학질) 한가지 병만해도 세계인구의 10억정도가 이 병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 한해에 200만명정도가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다. 또 주혈흡충, 사상충, 리슈마니아, 트리파노조마 등 우리에게는 생소하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선진대열에 끼어 들려면 무엇인가 세계문명이나 인류복지에 공헌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좋은 한 표본이 세계에서 인류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괴롭히고 있는 기생충을 퇴치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 같은 일이다. 생각해보라. 말라리아 예방주사나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면 10억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고약한 기생충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생충병 말고도 이런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위를 신장하고 또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면 우리 국민이 세계각국으로 진출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이들 기생충과 만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세계열강 쳐놓고 이런 기생충의 연구를. 하는 국가적 연구소가 없는 나라가 없다. 이들 열강들은 과거에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나 현재에는 그런대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대열에 끼어 들려면 국민소득이나 올림픽메달 보다도 무엇인가 세계문명이나 인류복지에 공헌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좋은 한 표본이 세계에서 인류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괴롭히고 있는 기생충을 퇴치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 같은 일이다. 생각해보라. 말라리아 예방주사나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면 10억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기생충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회충, 편충, 구충같은 기생충을 성공적으로 퇴치한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학문적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구심체로서 국가가 경영하는 기생충병연구소 또는 열대의학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장래의 꿈이다.

아니, 이런 꿈을 실현시키려면 아직도 우리 기생충학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더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만 몇가지 기생충이 줄어들었다 하여 정부당국, 의학계, 의학교육 관계자 그리고 기생충학 전공자들마저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정말 무지한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을 잘 보라”고 외치고 싶다. **㉔**

(필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수)